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리 전반적 부실 지적

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 전주 시정 질문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전주시의회 백영규(완산, 중화산1·2동) 의원은 7일 전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전통문화전당의 인사와 예산, 조직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날 "김승수 시장은 천 년이 넘는 역사가 퇴적된 전주를 대한민국 '문화수도', '문화특별시', 세계적인 위대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계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며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설명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민선 4기 '한스타 일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그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개관했으나, 원장과 사무국장이 고위 업무와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사무국장의 경우 하위 직원의 연가사용 문제는 물론 부당 지시, 권위적인 태도 등 조직 내부에서 끊임 없는 잡음을 양산하는 등 많은 사건의 중심에 있다가 사직했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이러한 모래성과 같은 조직에서 추진된 사업·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됐을 리가 만무하다"면서 "전당의 중장기 단계별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른 2015년 '기반구축 단계'는 실패했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 8월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기관의 기본 기본인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총 13건의 처분요구가 있었

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비롯해 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현재에 이르러 있는 것"이라며 "전주시 출연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점을 기록하며, 문화수도, 문화특별시 결연에 앞장서야 할 기능은 고사하고 운영조차도 버거운 기관으로 낙인 찍혔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전당의 현재 업무역량은 출연금에 의존한 자체사업 위주로 편중됐으며, 조직 구성 대비, 분야별 전문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조직운영 체계가 잡히고, 전통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지, 얼마나 더 실망하고 지적해야 전통문화 거점공간이자, 계승문화

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백 의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출연금 지원 등에 따른 통제수단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산낭비 요인 혹은 행정 팽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측면에서 실제 경영평가와 자체감사로는 현실적 운영 실태에 관한 적절한 견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일정부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개관 후 1년여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전당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채용예정 직무를 '전통문화'가 아닌 '경영분야'로 하여 1차모집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2차 재공고를 통해 조직운영관리 역력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했으나, 사무국 내부에서 여러 잡음이 있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승수 시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개관 후 1년여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전당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채용예정 직무를 '전통문화'가 아닌 '경영분야'로 하여 1차모집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2차 재공고를 통해 조직운영관리 역력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했으나, 사무국 내부에서 여러 잡음이 있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주시 공무원 인권도시 만들기 '솔선수범' 키로

인권감수성 교육 등 실시

전주시 공무원들이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만들기에 솔선수범키로 했다.

전주시는 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박순중 부시장을 비롯해 시 소속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인권감수성 교육과 자정거안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시정 핵심가치인 사람중심의 인권실현과 보장, 인권에 기반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달 간부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교육에 이어 이날 전 청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사무관은 "인권, 물음으로 싹트고 느림으로 자란다"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인권감수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했다.

그는 "인권감수성을 자극하는 것은 인권물음표이고,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인권느낌표다. 이것이 일상에서 수많은 인권느낌표와 인권물음표가 필요한 이유이다"라며 "일상에서 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인권물음표가 생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교육이 인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을 높여 시정 전반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인권 가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 산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의 교육을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한편, 시민들의 교육 참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 진·출입로 추가 개설키로

호남제일문 광장 교차로 방면 전북현대 홈경기 관람 편해져

전주시가 전주월드컵경기장 진·출입로를 추가 개설키로 해 내년 5월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과 K-리그 전북현대 홈경기 관람이 편리해진다.

전주시는 내년 4월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월드컵경기장에서 호남제일문 광장 교차로 방면 진·출입로(너비10m, 길이 334m)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한국전력공사 구간에 계획 중인 진·출입로가 추가로 개설되면, 대규모 체육행사 시 차량이 분산 효과로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교통난을 해소해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은고을로에서 월드컵경기장 서측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약 60m 길이의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출입구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월드컵경기장의 진출입로 추가 개설을 위해 지난달 조정계획을 변경했으며, 내년 4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추진, 내년 5월로 예정된 FIFA U-20 월드컵에 맞춰 진·출입로



전주시청 비서실 기습 점검 7일 오전 전주시청 비서실에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노조원 30여명이 '건설 현장 노사관계에 전주시청이 개입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습 점검 농성을 하고 있다.

를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에서 개막하는 U-20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내년 3월까지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수요와 특별노선 운행, 자가용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마련 및 홍보 등 U-20월드컵 대비 수송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U-20월드컵에 대비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기 했다.

시는 또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안전과 축구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잔디와 전광판 등의 경기장 시설 보수를 추진하는 한편,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 점검 및 공중위생서비스 우수 숙박업소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전북혁신도시 이주 공간정보연구원 방문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간정보연구원을 방문해 전주시 공간정보 발전방향 제시와 협력방안 등을 위한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전국 유일의 공간정보 전문연구기관인 공간정보연구원에 방문하여 국가공간정보 연구 동향과 전주 지역을 모델로 한 드론시범공역, 전주남부시장 활성화 및 연구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시와 연구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의견교환을 나눴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간정보연구원은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 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부로 출발해 2012년도에 공간정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 연구기획, 정책연구, 국토정보연구실 조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했다.

시는 공간정보 기본방향과 빅데이터, 정책지도 등 각종 공간정보 사업 시 공간정보연구원의 우수 인력과 고도의 기술력을 자문 받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다가공원 강당재 도로 확장

전주시가 중화산1동과 완산동을 잇는 다가공원 강당재 도로 확장을 통해 인근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전주시는 총 사업비 1억4000만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폭 4m로 협소한 다가공원 주변 소로인 강당4길 145m 구간을 차랑 교행이 가능한 폭 5m의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강당재"는 중화산1동과 완산동을 잇는 오래된 고개로, 과거 화산서원(華山書院)의 강당이 있는 고개를 선비들이 오르내리면서 공부를 했다고 전해지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도로는 원도심과 중화산동, 효자동을 잇는 주요 도로인 용머리로와 서원로가 생겨난 이후에도 많은 차량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 다가공원을 산책

하는 시민들이 중화산동에서 다가산 정상으로 넘어오는 주요 산책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 확장을 통해 좁은 도로폭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또, 도로 측면 경사 부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도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측면 배수로를 정비하고, 겨울철 급경사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강당재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감소될 것"이며 "확장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의원 업체 리베이트 의혹

전주시장은 최근 전북도의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사무실 3~4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전북도의원들로부터 재량사업비를 받아 공사에 쓰고 해당 의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전주와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건 맞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 안전점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은 7일 동절기를 맞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정 시설분야와 겨울철 동과 방지 작업 등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만남의광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지면적 473,293㎡ 및 연면적 93,486㎡인 시특별 대상 1종시설물로 전주에서 지난 11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오는 '2017 U-20 월드컵' 경기 대비경기장 시설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시시설공단 김신 이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